

장점마을 인근 비료공장 가동 암 발생 영향

환경부, 실태조사 발표... 20일 주민설명회 실시

환경부는 '익산 장점마을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이하 "건강영향조사") 용역 최종 자문회의를 지난 12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최종 자문회의에서 이 용역을 수행한 환경안전건강연구소는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장 가동이 주민들의 암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는 결론을 발표했다.

앞서 11일, 익산 장점마을 환경비상대책 민관협의회는 용역수용하여

환경부는 최종 자문회의를 하기 전 환경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교환했다. 환경부는 최종 자문회의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장점마을 인근 비료공장 가동이 주민들의 암 발생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 및 환경오염 피해구제제도 적용가능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그 결과를 오는 20일 개최예정인 주민 설명회때 종합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환경오염피해구제는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의 개연성이 있을 경우 사업자 원상회복 및 배상책임이 있으나, 원인이 무지력자일 경우 환경부에서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가 있다. 익산시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유)금강농산 사업 부지를 매입하고, 향후 환경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실추된 익산시 합리지역의 친환경 이미지를 되찾고자 한다.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 뿐 아니라 익산 시민, 그리고 시의회 등 모두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건강영향조사가 완료되면 이

를 근거로 본격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점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건강 검진을 통한 사후관리 및 주변 환경오염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겠다는 내용이다. 건강피해 주민에 대한 피해구제 추진 역시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영원 기자

찾은 민원... 군산시의 책임 있는 행정 시행 촉구

설경민 시의원, 5분 발언서 지적

최근 잦은 민원 발생에 따른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시의 신중하고 책임 있는 행정 시행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13일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설경민 의원은 제219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는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 지적했다.

설 의원은 시 행정의 모든 행위는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법을 통해 얻은 권한으로 행정사무행위를 통해 통제하고 제한하며 실행해야 하지만 군산시는 지난 5년간 225건의 소송에 이어 올해만도 벌써 41건으로 잦은 민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발전 사업이나 폐자원시설, 소각 시설 등 환경문제를 연결되어 있는 인허가의 행정은 시에서 직접 판단과 결정이 가능한 사안일지라도 소송의 결과에 명분을 찾고 시민사회 단체와 반대의 여론과 비난을 피하는 군산시의 무책임한 행정이 관행처럼 행해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최근 SMG에너지사와 군산시 사이의 건축허가사항변경 불허가처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설경민 의원은 제219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분 취소의 소'에서 법원의 시 불허가 처분 취소의 판결에 대해 불복, 항소를 결정한 건에 대해 김인준 시장의 주어진 권한을 가장 합리적으로 행사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리더쉽과 책임감을 보여 달라고 덧붙였다. 설경민 의원은 "본 의원 역시 군산시의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사업 할 수만 있으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정부가 지원하고 장려하는 사

업에는 친환경적인 사업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과 소송의 경우도 대부분 행정인 패소에 소송비용만 버리는 것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군산시의 SMG에너지사와의 '건축허가사항 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의 소' 건에 대해 지난 5월 23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주요내용은 군장 에너지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소협의를 해 급격한 환경오염을 단정하기 어렵다와 대기오염의 악화의 주장은 단순한 가능성이나 막연한 우려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군산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허의 공익상 필요가 존재하지 않는다'와 환경단체와 인근주민들의 반대의 사정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에 따라서 처분은 위법하다며 SMG에너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시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고심한 끝에 6월 10일 최종적으로 항소를 결정하고 향후 2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함께 소송 당사자인 SMG에너지사도 1천억원이 넘는 손해가 예상돼 사업주의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 법적 대응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향후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군산=김정훈기자

원광대 HK+지역인문학센터 인문강좌 '인문백제' 진행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HK+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는 13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총 6주 동안 인문강좌 '인문백제'를 진행한다. '인문백제'는 지난해 열렸던 '인문백제'를 잇는 두 번째 인문강좌로 백제와 인문학적 요소를 결합한 강좌로써 백제시대의 다양한 주제와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역사문화와 인문학에 대한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교내 송산기념관에서 진행되는 이 강좌는 13일 원광대 역사교육과 이다은 교수의 '백제 유민의 일본 행로' 강좌를 시작으로 소현숙 역사교육과 초빙교수의 '백제 불교조각과 산동, 그리고 남조' 등 강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익산=장인천 기자

익산꽃 여정과, 어르신 학대 예방 활동

익산경찰서(서장 박헌수) 여성청소년과에서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노인학대 근절을 위한 집중신고기간 운영과 함께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어 화제다. 노인학대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의식주를 함께하는 가족·시설종사자인 경우가 많아 피해신고가 지연·은폐되는 특성이 있다.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14~30일(17일 간) 학대 집중 신고기간 운영과 함께 관련 시설을 방문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유 관기관과 함께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익산=장인천 기자

맞춤형 정책발굴 '익산시민아카데미' 개강

5팀 최종 선정, 3개월 간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시민들이 참여해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는 '2019 익산시민아카데미'가 개강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익산시(시장 정현윤)는 13일 정현윤 익산시장과 시민 참가자, 프로그램 참여 시의원,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강식을 진행했다.

이날 개강식은 선배수료생이 알려주는 시민아카데미 Tip과 아카데미 운영일정, 본선 진출팀 소개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인터넷 접수를 통해 진행된 '소소한 아이디어 콘테스트'에서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된 10명('힐단보도 그늘막에 익산 관광지 소개', '빛나는 힐단보도 설치', '유모차를 재활용해서 실버카로 활용하기' 등)에 대한 시상식도 열렸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익산시민아카데미는 기획주제(고백의 도시 익산)와 자유주제 부문으로 나눠 선정된 5팀이 3개월간의 아카데미 과정을 거치게 되며 시민이 공감하는 불편해소와 생활아이디

어 공모전('소소한 아이디어 콘테스트'), 기존 참가자와 올해 참가자의 만남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앞서 시는 참가 신청한 10팀에 대한 전문가 심사를 통해 기획주제 1팀('고백하는 익산여행 만들기 프로젝트')과 자유주제 4팀('엄마와 함께하는 내 고향 익산여행' 외)을 각각 선정한 바 있다.

정현윤 익산시장은 개강식에서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익산시민아카데미는 아이디어 제안 참가팀별로 시의원,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전국 대표 민관협력 프로그램으로 자부한다"며 "시민이 제안한 사업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민아카데미는 지난 9년간 총 5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해 52건의 정책을 제안했으며 이 가운데 '영등지하도 개선사업', '시민공원 어린이생태놀이터 조성' 등 22건이 시정에 반영됐다. /익산=장인천 기자



13일 군산시 농산물유통과 직원들이 오션환 농가를 찾아 양파를 수확했다.

군산시 농산물유통과 전직원, 농촌일손돕기 나서

군산시 농산물유통과 직원들이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지역 농가를 방문해 구슬땀을 흘렸다. 13일 문영업 과장을 비롯해 전 직원은 양파 수확기철 농촌인력부족으로 농산물 수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수면에 소재한 오션환 농가를 찾아 약 3800㎡의 농지에 심은 양파를 수확하고 선별작업을 실시했다. 이번엔 선별된 친환경양파는 아이들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도록 전량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학교급식에

공급된다. 농가주 오션환씨는 "농산물유통과 직원들의 일손지원으로 수확작업 걱정을 조금 덜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영업 농산물유통과장은 "정성들여 재배한 양파수확작업을 도울 수 있어 보람되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농번기 일손돕기를 추진해 농가의 소통과 화합을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본격 추진

군산시가 효율적인 생활하수처리로 혼탁천 등 하천 및 방류수역의 수질오염 문제를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성산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성산면은 시내권과 근접해 교육시설, 산단·개발공장, 펜션 등이 밀집된 지역이지만 공공하수관로 및 처리장이 없어 미처리된 하수가 혼탁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어 친환경농업 경영에도 지장을 초래하

고 있었다. 군산시는 주민숙원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지난해 국회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건의하여 하수처리장 1개소(1000㎡/일), 하수(오수)관로 36.3km를 설치하는 총사업비 427억 규모의 2019년도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신규대상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군산=김정훈 기자

"자동차 이전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



대표 이영근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